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82



# Contents

---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3.05~2026.03.11

##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 1
- 경제·관광 ..... 2
- 지역·사회 ..... 2

##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11

##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예비후보(경선/감점/오영훈/문대림), 축제, 생활, 에너지, 청년
경제·관광	가격(상승/주요소/에너지), 판매(상품), 유치, 대응, 기반
지역·사회	위반, 불법, 대응, 예방, 여성

※ 분석 기간 : 26.03.05.~26.03.11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예비후보(경선/감점/오영훈/문대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 도지사 경선 대진표 확정</li> <li>- 문대림 예비후보 12대 공약 발표</li> <li>- 문성유 예비후보 국민의힘 단수 공천</li> </ul>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아트 도입된 제주들불축제</li> <li>- 바가지요금 축제 무관용 퇴출</li> <li>- 지역 특색 살린 특화 축제 육성</li> </ul>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방식 개편</li> <li>-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기준 강화</li> <li>- 간선급행버스 도입에 따른 교통 개선</li> </ul>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발 유가 급등 선제적 대응</li> <li>- 민관 협력 제주 에너지 거버넌스 출범</li> <li>- 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대전환 가속</li> </ul>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대림 후보의 5대 패스 통합 정책</li> <li>- 탐라영재관 운영 및 취업 멘토링</li> <li>- 도민대학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li> </ul>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가격(상승/주요소/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 급등과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li> <li>- 농가 유류비 부담 완화 300억 지원</li> <li>- 소비자물가 동향 및 밥상물가 비상</li> </ul>
	판매(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감류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li> <li>- 한류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li> <li>- 우수 관광기념품 시장 경쟁력 강화</li> </ul>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단 기업 '어썬레이' 본사 제주 유치</li> <li>- 하나은행 협력 기업 유치 거점 조성</li> <li>- 동남아시아 관광시장 타깃 마케팅</li> </ul>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 사태 장기화 대비 경제 영향 최소화</li> <li>- 1회용컵 보증금제 성과 및 자원순환</li> <li>- 어업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당 인상</li> </ul>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 전환</li> <li>- 드론 배송 상용화 및 공공서비스 확충</li> <li>- 제주-칭다오 직항로 물류 허브 도약</li> </ul>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 관계법령 위반 행위 수사 및 단속</li> <li>- 외국인 무등록 여행업 등 위반행위 적발</li> <li>- 중국어선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나포</li> </ul>
	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 조직 일당 일망타진</li> <li>- 화물선 해상 분뇨 불법 배출 행위 단속</li> <li>- 하천 및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강력 정비</li> </ul>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 사태 연원 고유가 및 수급 위기 대응</li> <li>- 기후위기 대응 민간 주도 탄소중립 실천</li> <li>-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범죄 추적 및 대응</li> </ul>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봄철 건조기 들불 및 대형 화재 사고 예방</li> <li>- 농번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구조훈련 실시</li> <li>- 디지털 과의존 문제 조기 예방 및 해소 지원</li> </ul>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주지역 여성대회 개최</li> <li>- 제주해녀항일운동 공식 기념식 격상 및 추진</li> <li>- 다문화엄마학교 운영 및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li> </ul>

##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3월 5일~3월 11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775건임
  - 정치·행정 분야 382건, 경제·관광 133건, 지역·사회 260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예비후보(경선/감점/오영훈/문대림), 축제, 생활, 에너지, 청년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예비후보 (경선/감 점/오영 훈/문대 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 도지사 경선 대진표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현직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 위성곤 국회의원을 경선 후보로 최종 확정하였으며, 예비경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권리당원과 일반 도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합산 반영하는 본경선 방식으로 승부를 가리기로 결정함.</li> <li>· 오영훈 지사는 선출직 하위 20% 평가에 따라 경선 득표율의 20% 감산이 확정되었고, 문대림 의원은 과거 공천 불복 전력으로 인해 25% 감산 통보를 받아 최고위원회의의 구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어 감점 패널티 적용 여부가 이</li> </ul> </li> </ul>
-------	-------------------------------------	---

	<p><b>예비후보 (경선/감 점/오영 훈/문대 림)</b></p>	<p>번 경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대림 예비후보 12대 공약 발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대림 국회의원은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주신항 북극항로 허브화, 도민 주도의 내발적 경제주권 실현 등을 포함한 12대 전략과제 공약을 대대적으로 발표함.</li> <li>· 문 의원은 당 중앙위의 25% 경선 감점 통보와 관련하여 최고위원회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예외 적용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최종 감산 결과에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도지사 경선을 완주하여 위대한 도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함.</li> </ul> </li> <li>- <b>문성유 예비후보 국민의힘 단수 공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제주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하면서, 중앙정부의 예산 구조를 가장 잘 이해하고 국가 미래 산업 정책을 담당해 온 검증된 정책 전문가로서 제주의 현안을 국가적 시야에서 풀어낼 최적임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li> <li>· 문 후보는 중앙당 공천 면접에서 오랜 공직 생활에서 비롯된 압도적인 행정 및 경제 전문성을 강조하며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고, 조만간 선거 사무소 개소식과 출마 선언을 거쳐 제주 지역의 발전과 경제 안정화를 이끌기 위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예정임.</li> </ul> </li> </ul>
<p><b>정치·행정</b></p>	<p><b>축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미디어아트 도입된 제주들불축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6일간 개최되는 2026년 제주들불축제는 기존의 관행적인 내빈 호명과 장시간 축사 등 의전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최신 융복합 미디어아트쇼인 디지털 불농기를 전격적으로 도입하여 방문객들에게 감각적인 스토리텔링과 높은 몰입도를 선사함.</li> <li>· 축제 행사장 입구에서는 지역 농수특산물과 소상공인 가공식품을 정사가 대비 최대 50%까지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규모 상생장터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도민과 관광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 경제 상생의 화합 장을 마련함.</li> </ul> </li> <li>- <b>바가지요금 축제 무관용 퇴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는 축제 현장에서의 바가지요금 부과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제주 관광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탐라문화제와 전농로왕벚꽃 축제 등을 2차 평가 대상에서 즉각적으로 배제하며 무관용 원칙을 기반으로 한 엄격한 도 지정 축제 선정 기준을 새롭게 적용함.</li> <li>· 적발되어 지정이 취소된 축제는 향후 3년 동안 도 지정 축제 평가 대상 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며, 해당 기간 동안 축제 예산 보조율이 최대 50%까지 제한되는 강력한 행정적, 재정적 페널티를 받게 되어 행사 주관 단체의 책임성과 공공성 제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됨.</li> </ul> </li> <li>- <b>지역 특색 살린 특화 축제 육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일대에서는 꽃자왈 고유의 특산식물인 제주백서향을</li> </ul> </li> </ul>

<b>정치·행정</b>	<b>축제</b>	<p>주제로 한 향기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지역 주민 주도의 생태 보전과 관광 자원 활용의 우수 사례로 성공적으로 안착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민간 단체 주도에서만 이루어지던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행사가 올해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주관하는 공식 도 단위 기념식으로 격상되어 해녀광장에서 거행되며, 퓨전 국악과 편지 낭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억압에 맞섰던 해녀들의 숭고한 항일 정신을 후대와 널리 공유함.</li> </ul>
	<b>생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방식 개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도서 지역 도민들의 고질적인 생활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총 40억 원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의 4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장함.</li> <li>· 복잡했던 기존의 실비 정산 방식을 운송장 1건당 3천 원을 지급하는 정액제로 간소화하여 도민들의 신청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나, 일각에서는 예산 지원 한도 축소 및 사업 안정화에 따른 조기 예산 소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li> </ul> </li> <li>- <b>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 기준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지난 2년 동안 도내 200여 개의 각종 축제와 행사장에 다회용기를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약 48톤에 달하는 일회용품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여와 세척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li> <li>· 올해부터는 행사 주최 측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 비용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자부담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용기 분실률이 30%를 초과하는 불성실한 행사의 경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하는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 기준을 새롭게 정립함.</li> </ul> </li> <li>- <b>간선급행버스 도입에 따른 교통 개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 서광로 구간에 섬식 정류장과 양문형 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본격 도입된 이후, 노선버스의 평균 운행 속도가 시속 10.8km에서 15.5km로 약 44% 빨라지고 일반 차량의 통행 속도 역시 39%가량 크게 향상된 것으로 실측 조사됨.</li> <li>· 버스 전용 차로 신설과 교통 흐름 개선의 영향으로 서광로 구간의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이 10% 이상 감소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객은 월평균 4만 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도심 내 만성적인 교통 정체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함.</li> </ul> </li> </ul>
	<b>에너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동발 유가 급등 선제적 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무력 충돌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지역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제주도는 특별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도내 주유소의 최고가와 최저가 정보를 매일 2회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한 시장 가격 경쟁을 강력히 유도함.</li> <li>· 도내 에너지 비축량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수학여행</li> </ul> </li> </ul>

<b>정치·행정</b>	<b>에너지</b>	<p>시즌을 맞아 유류비 비중이 높은 전세버스 업계의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불공정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드림 지원 사업을 5월로 앞당겨 조기 집행함.</p> <p>- <b>민관 협력 제주 에너지 거버넌스 출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기존의 행정 및 전문가 주도 에너지 정책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도민과 비영리단체,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 25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민관 협력 플랫폼인 '제주 에너지 거버넌스'를 정식으로 출범하며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을 선언함.</li> <li>· 출범식에 참석한 다양한 세대의 도민들은 에너지 주권 선언식을 통해 생활 속 재생에너지 소비 확대와 마을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다짐하였으며, 도정은 이를 바탕으로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지역 주도 분산형 체계로 성공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임.</li> </ul> <p>- <b>히트펌프 보급 확대와 대전환 가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도지사는 대규모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유치 없이도 도내 다수의 숙박업소와 일반 가정의 화석연료 난방 수요를 전기로 전환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서 대대적인 히트펌프 보급 사업의 중요성을 정책 공유 회의에서 역설함.</li> <li>· 올해 배정된 정부 전체 히트펌프 보급 사업 예산 144억 4800만 원 가운데 무려 92.2%에 해당하는 133억 2800만 원을 제주도가 단독으로 성공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이는 제주가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임을 확고히 입증한 주요한 성과임.</li> </ul>
	<b>청년</b>	<p>- <b>문대림 후보의 5대 패스 통합 정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대림 도지사 경선 후보는 최근 5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청년이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고향을 떠나는 심각한 탈제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 일자리, 문화 등 핵심 분야를 생애 주기별로 맞춤 지원하는 획기적인 '5대 PASS 통합 플랫폼' 정책 공약을 전격적으로 발표함.</li> <li>· 8개 부서에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연간 1793억 원 규모의 기존 청년 정책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전담 매니저의 1대1 취업 밀착 관리 등을 도입하여, 도민의 추가 세금 부담 없이도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함.</li> </ul> <p>- <b>탐라영재관 운영 및 취업 멘토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탐라영재관에 새롭게 입주한 수도권 진학 제주 출신 대학생 228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으며,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제주 출신 선배들을 초청하여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실질적인 진로 멘토링과 특강을 제공함.</li> <li>· 탐라영재관은 저렴한 기숙사 사용료와 양질의 식사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학업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향후 주요 대학들과의 접근성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용산에 위치한 마사회장학관으로의 시설 이주를 적극 추진하여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을 약속함.</li> </ul> <p>- <b>도민대학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b></p>



경제·관광	<p>가격(상승/주요/에너지)</p>	<p>요청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가 유류비 부담 완화 300억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하우스 난방용 등유 의존도가 전국에서 유독 높은 제주 농가의 구조적 특성상, 최근 단기간 내 발생한 폭발적인 유가 폭등 현상은 가온 온주감귤 재배 농가 등의 막대한 생산비 증가 및 생존권 위협과 직결되어 농업 현장의 시름과 불안감이 팽배해진 상황임.</li> <li>· 농협중앙회 제주본부는 영농철 농가 경영비 부담을 선제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자체 예산 300억 원을 긴급 투입, 최근 3년간 평균 면세유 소비량에 따른 할인 250억 원과 전국 농협주유소 카드 결제 시 리터당 200원의 캐시백 할인 50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함.</li> </ul> </li> <li>- <b>소비자물가 동향 및 밥상물가 비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2월 기준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를 기록하여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였으나, 쌀과 보리쌀, 돼지고기 및 고등어 등 도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주요 농수축산물 식재료 가격의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지며 실질적인 장바구니 밥상물가 부담이 매우 큼.</li> <li>· 특히 최근 발생한 국제유가 급등분이 향후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경우 운송 물류비 및 생산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여, 외식 물가와 가공식품 등 사회 전반적인 물가 지표의 폭발적인 추가 상승 압력 뇌관으로 작용할 엄중한 전망이다.</li> </ul> </li> </ul>
	<p>판매(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만감류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시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서귀포in정'은 최근 지속적인 가격 하락과 극심한 소비 부진 한파를 겪고 있는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의 실질적 소비 촉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신세계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내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여 2.5kg 소포장 상품 판매를 시작함.</li> <li>· 이와 더불어 제주농협채소조합공동사업법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홈쇼핑 전용 상품인 신품종 양배추 '달코미' 런칭 방송을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판매하는 등 산지 기반 제주 농산물의 판로 다각화와 유통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임.</li> </ul> </li> <li>- <b>한류 연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세계적인 한류 열풍에 힘입어 제주를 글로벌 한류 관광의 핵심 목적지로 집중 육성하고자, 순수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의 청정 자연 자원과 다채로운 한류 요소를 전략적으로 결합한 2박 3일 이상의 장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함.</li> <li>· 일정 중 최소 2일 이상 지정된 한류 관련 장소를 방문하는 상품을 기획·운영하는 국내 종합 인바운드 여행사에는 5만 명 이상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동행 여부 및 체류 기간에 따라 참가자 1인당 인센티브와 일일 차량 임차비 등 업체당 연간 최대 500만 원의 파격적인 실비를 지원할 방침임.</li> </ul> </li> <li>- <b>우수 관광기념품 시장 경쟁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하는 우수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편하여, 서류 합격 단계부터 브랜딩 및 디자인 전문가의 밀착 사전 컨설팅을 도입함으로써 출품작의 실질적인 완성도와 치열</li> </ul> </li> </ul>

<b>경제·관광</b>	<b>판매 (상품)</b>	<p>한 시장 내 판매 경쟁력을 대폭 강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0개의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영예의 대상 상금 지급뿐만 아니라 70% 수준의 상품 개발비 보조, 상표 및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국내외 유력 박람회 참가 기회 제공 등 전폭적인 사업화와 판촉을 지원함.</li> </ul>
	<b>유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첨단 기업 '어썬레이' 본사 제주 유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탄소나노튜브(CNT) 기반 첨단 소재 연구개발 중심 혁신 기업인 어썬레이(주)가 제주도와 전략적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총 60억 원 규모의 과감한 자본 투자 및 10명의 우수 신규 인력 채용을 동반하는 본사의 전면적인 제주 이전 사업을 최종 확정함.</li> <li>· 해당 유망 기업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핵심 거점인 제주혁신성장센터 루트330에 입주하여 초경량·고내열 소재 기술을 우주·항공·방산 분야로 거침없이 확장할 계획이며, 제주도는 이러한 미래 전략산업 우량 기업의 성공적인 향토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명시된 다각적인 행정적, 재정적 밀착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함.</li> </ul> </li> <li>- <b>하나은행 협력 기업 유치 거점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와 하나은행은 든든한 민관 상생 협력 체계를 전격 구축하여 제주로의 본사 이전 및 대규모 투자를 검토하는 타 지역 우수 기업들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제주도 중앙로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 내 핵심 유휴 공간을 무상 비즈니스 거점 공간으로 전면 개방함.</li> <li>· 이를 토대로 양 기관은 맞춤형 투자 유치 설명회의 공동 기획 및 추진을 비롯해 도내 이전 검토 기업 대상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 최적화된 기업 금융상품 안내와 세무, 투자 자문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를 아우르는 심층적인 비금융 컨설팅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하며 우량 기업 발굴에 앞장섬.</li> </ul> </li> <li>- <b>동남아시아 관광시장 타깃 마케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 관광객의 제주 방문 수요가 가파르게 급증하는 긍정적인 추세에 선제적으로 발맞춰, 제주도는 에어아시아 및 스쿠트항공 등 현지 유력 항공사와의 직항 노선 연계 마케팅은 물론 싱가포르 창이공항의 글로벌 환승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한 인접 국가 잠재 관광객 집중 유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함.</li> <li>· 아울러 한국관광공사 핵심 해외지사와의 긴밀하게 공동 협력하여 대규모 교육여행단 유치 도모 및 올레길 사이클링, 친환경 웰니스 등 고부가가치 로컬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현지 K-관광로드쇼에 직접 참가하여 다채로운 밀착 홍보 활동으로 제주만의 독보적인 관광 매력을 아낌없이 발산함.</li> </ul> </li> </ul>
	<b>대응  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동 사태 장기화 대비 경제 영향 최소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과 이란의 치명적인 무력 충돌 여파 등 견잡을 수 없이 심화되는 중동 정세 불안 리스크에 즉각 대응하여 제주도는 도내 필수 에너지 비축 물량을 철저히 긴급 점검하고, 글로벌 유가 급등에 암체처럼 편승한 불공정 물가 인상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과 일선 가격담합신고센터를 신속하게 가동함.</li> <li>· 현재 도내 주요 에너지 비축량은 충분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파악되나 불확실한</li> </ul> </li> </ul>

경제·관광		<p>국제 상황 장기화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공기관 차량 5부제 강제 시행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타격이 예상되는 수출 중소기업 전담 창구의 즉각적인 운영 및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필수 지원 사업을 조기 추진하며 지역경제 전반의 연쇄 피해 예방에 빈틈없이 대응함.</p> <p>- <b>1회용컵 보증금제 성과 및 자원순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전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친환경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무려 60%에 달하는 높은 도내 컵 반환율을 달성하고, 누적 1456만 개의 컵을 완벽히 회수하여 골칫거리인 플라스틱과 종이 폐기물을 대폭 감축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탁월한 자원순환 기후환경 정책 성공 사례 성과를 명확히 입증함.</li> <li>·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헌신적으로 동참한 도내 우수 참여 매장 12곳을 엄선하여 대대적인 정부 및 지자체 포상을 성대하게 진행했으며, 향후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대폭 확대 등 도민 반환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와 매장 양측에 대한 혜택 인센티브를 더욱 두텁게 강화하여 모범적인 친환경 제도의 흔들림 없는 지속적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임.</li> </ul> <p>- <b>어업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당 인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격한 해양 기후변화 위기와 폭등하는 유류비 등 필수 불가결한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전업 어업인들의 든든한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생태계 보전에 지대하게 기여하는 고된 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한층 더 촘촘하게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함.</li> <li>· 종전 1인당 연 40만 원 수준에 머물렀던 어업인수당 예산을 올해부터 과감하게 증액하여 1인 어가는 연 50만 원, 2인 이상 어가는 가구 구성원 1인당 연 45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며, 과거 법령 위반 이력에 따른 엄격한 수급 배제 조항을 대폭 수정하여 원상복구 등 관련 시정 조치 이행 시 온전하게 수당을 지급받도록 합리적인 권리구제 제도를 대폭 개선함.</li> </ul>
	기반	<p>- <b>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 전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굴지의 지역 금융기관인 제주은행은 지방은행 역사상 최초로 첨단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면 구축을 위해 통신 대기업 KT와 전략적 사업 계약을 전격 체결하고, 일반 직원들이 고도화된 업무용 AI 에이전트를 직접 손쉽게 개발하여 매일의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 디지털 금융 업무 환경 기반을 선도적으로 조성함.</li> <li>·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과업을 완벽히 완료하여 복잡한 행내 규정 실시간 질의응답 지원, 필수 공문 및 보고서 자동 작성 기능, 까다로운 여신 심사 업무 지원 등 은행 핵심 업무 전반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철저한 금융권 보안 기준에 온전히 부합하는 가장 안전하고 혁신적인 AI 전환(AI) 초격차 미래 경쟁력을 탄탄하게 구축할 계획임.</li> </ul> <p>- <b>드론 배송 상용화 및 공공서비스 확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 사업에 전국 구로 4년 연속 당당히 선정되어 핵심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물류 소외 지역인 가파도와 마라도 및 비양도 등 주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li> </ul>

경제·관광	기반	<p>공공배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필수 생활용품 및 긴급 일반의약품의 혁신적인 상물 K-드론 배송 상용화 인프라 물류 기반을 속도감 있게 구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험준한 지형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첨단 수직이착륙기(VTOL)와 고해상도 인공지능(AI) 영상 실시간 분석 기술을 다각도로 융합 활용하여 한라산 국립공원 내 조난자 수색 등 촘촘한 밀착 안전 관리 통신 체계를 구축하고, 보행이 불편한 노약자 계층을 널리 포용하기 위한 가상현실(VR) 기기 연동 실감형 비행 드론 관광 서비스를 전격 도입하는 등 공공서비스 기반을 확장함.</li> </ul> <p>- 제주-칭다오 직항로 물류 허브 도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제주-칭다오 간 해상 직항로를 굳건한 동아시아 핵심 물류 거점 허브로 확실하게 육성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 통관에 필수 불가결한 대규모 컨테이너 전용 야적장(CY)과 신선 냉동·냉장 수입식품 보관용 영업 보세창고 특허 취득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까다로운 국제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항만 핵심 물류 통관 인프라 기반 마련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함.</li> <li>· 이와 더불어 도내 최초로 역량 있는 전문 국제물류 주선업체(포워딩사) 2개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컨테이너 1대를 채우기 힘든 영세 중소기업 맞춤형 소량화물(LCL) 운송 서비스를 전격 도입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물류 접근성과 획기적인 운송 비용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개선하고, 거대한 중국 온라인 플랫폼 소비 시장과 긴밀하게 연계한 지속 가능한 정기 수출입 물동량을 든든하게 확보함.</li> </ul>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위반, 불법, 대응, 예방, 여성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 관계법령 위반 행위 수사 및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 한 해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 예방 등 소방 관계법령 위반 행위 총 63건을 수사하여 110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엄정 대응 조치.</li> <li>· 불법 소방시설과 부실 시공, 안전관리 소홀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구조 및 구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위반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대폭 감소시키는 성과 달성.</li> </ul> </li> <li>- 외국인 무등록 여행업 등 위반행위 적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자치경찰단은 렌터카를 장기 임차해 대만 관광객을 안내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과 지인 차량으로 불법 영업을 한 중국인 유학생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연속 적발.</li> <li>·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편승해 세금을 탈루하고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무등록 여행업 등 위반 행위가 제주 관광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 계획.</li> </ul> </li> <li>- 중국어선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나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해상에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기고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고의로 축소 기재하며 불법 조업을 자행한 중국어선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즉각적인 적발 및 나포 조치.</li> <li>· 정부의 불법 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응 방침에 따라 상향된 담보금 부과 기준을 처음 적용하여 조업일지 부실 기재 위반 선박들에 대해 총 3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행정적 제재 시행.</li> </ul> </li> </ul>
	불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고금리 불법 사금융 조직 일당 일망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심사 단기 대출 광고를 올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 402명에게 접근한 뒤, 최대 연 3만65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초고금리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 조직원 전원 검거.</li> <li>· 신분증과 지인 연락처를 담보로 확보한 후 채무 상황이 지연되면 가족과 지인에게 빚을 독촉하거나 소셜미디어에 대부 계약서를 유포하겠다고 악의적으로 협박하는 등의 중대한 불법 추심 행위 자행.</li> </ul> </li> <li>- 화물선 해상 분뇨 불법 배출 행위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한림항에 입항한 1000톤급 화물선이 영해기선 12해리 이내 해역을 장기간 운항하면서 분뇨처리장치를 거치지 않은 5800리터 규모의 선원 생활오수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혐의 적발.</li> <li>· 선박 운항일지 조사를 통해 총 6차례에 걸친 상습적인 불법 배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제주해양경찰은 항만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물질 불법 투기 여부에 대한 지도와 점검 활동 강화.</li> </ul> </li> <li>- 하천 및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강력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내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장기간 토착화되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재조사 착수.</li> </ul> </li> </ul>

<b>지역·사회</b>	<b>불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유림과 도랑 등 누락되기 쉬운 구역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고,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며 고발과 행정대집행 절차를 병행하는 등 예외 없는 고강도 단속 추진.</li> </ul>
	<b>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동 사태 연원 고유가 및 수급 위기 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란 사태 여파로 제주지역 경유 평균 가격이 전국 최고가인 리터당 1969원 까지 급등함에 따라, 제주도는 유관기관과 긴급 대응 회의를 열고 비축량 확인 및 유류 수급 모니터링 체계 적극 가동.</li> <li>· 유가 급등 상황이 지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을 면밀히 검토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선제적 대응.</li> </ul> </li> <li>- <b>기후위기 대응 민간 주도 탄소중립 실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위기 대응과 2035년 제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새마을지도자제주도협의회가 주관하는 1도민 1그루 나무 심기 초록릴레이 캠페인의 성공적인 첫 민간 참여 숲 조성 행사.</li> <li>· 기후위기 대응 숲 부지에 애기동백과 수국 등 1300여 본의 식물을 식재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복원 모델을 제시하고, 도민과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범도민 운동.</li> </ul> </li> <li>- <b>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범죄 추적 및 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하여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등 다양한 온라인 사기 범죄를 기획하고 막대한 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킨 일당을 신속하게 검거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산 차단 및 대응.</li> <li>· 사기 피해금의 자금 세탁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지능적인 은닉 수법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 조치했으며,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사이버 금융 범죄 수사 역량과 대응 체계 강화.</li> </ul> </li> </ul>
	<b>예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봄철 건조기 들불 및 대형 화재 사고 예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들불 발생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봄철 들불 안전사고 주의보를 즉각 발령하고 쓰레기 소각 금지 및 농가 인접 지역 화재 취약 요소 제거 예방 집중.</li> <li>· 화재 사망자 절반 감소를 목표로 화재안전 취약계층 대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대형 공사장과 노후 아파트 등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대형 화재 선제적 차단 예방.</li> </ul> </li> <li>- <b>농번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구조훈련 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귤나무 전정 및 간벌 시기를 맞아 전동가위, 파쇄기 등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면서 손가락 절단 등 중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과 신속 구급을 위한 맞춤형 특별 구조훈련 실시.</li> <li>· 일선 소방관서와 농기계 제작 업체가 합동으로 실전과 같은 반복 훈련을 전개하여 구조 대원의 현장 대처 능력을 전문화하고, 농업인들에게 장비 사용 전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예방 캠페인.</li> </ul> </li> <li>- <b>디지털 과의존 문제 조기 예방 및 해소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과 인터넷 이용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집중력 저하 및 가족 갈등 등 디지털 과의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민 1만 2000여 명을</li> </ul> </li> </ul>

<b>지역·사회</b>	<b>예방</b>	<p>대상으로 맞춤형 무료 예방 교육 적극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상담사가 직접 도내 학교와 위기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스마트 기기 이용 예방.</li> </ul>
	<b>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주지역 여성대회 개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제주지역 여성 및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주시청 광장에 집결해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과 민주주의의 재구성을 촉구하는 공식 선포식 및 대규모 거리행진 주도적 개최.</li> <li>· 돌봄 노동,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 젠더폭력 근절, 기후위기와 여성 건강권 등 6개 핵심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시민참여 부스를 운영하여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강한 연대 의식 확산 도모.</li> </ul> </li> <li>- <b>제주해녀항일운동 공식 기념식 격상 및 추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동안 민간 단체가 주도해 온 제주해녀항일운동 추모 행사를 올해부터 제주도 주관의 공식 기념식으로 전격 격상시켜 해녀박물관 야외 광장에서 제94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해녀들의 항일 투쟁 재조명.</li> <li>· 일제의 부당한 경제적 수탈에 맞서 강력한 연대와 용기로 주도했던 여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정신을 전승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편지 낭독과 만세 삼창 등 송고한 헌신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li> </ul> </li> <li>- <b>다문화엄마학교 운영 및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자녀의 초등 학습을 직접 지도하고 학교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귀포시에서 다문화엄마학교 입학식을 열고 장기간의 교육과정과 검정고시 응시 전폭 지원.</li> <li>·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들이 빈번하게 겪는 농작업 관련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 연령을 80세까지 대폭 확대 시행하여 여성들의 건강한 영농 활동과 삶의 질 향상.</li> </ul> </li> </ul>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